

침실 불이 꺼지면

윤 제 철(시인)

아침을 열던 동쪽 산은
먼 아파트 단지 창마다 새나오는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변화하던 대낮의 도로는
이따금 질주하는 차량 전조등
반딧불이 마냥 날아든다

밤은 모든 걸 감추고
가릴 수 없는 것들만 실루엣으로
흔적만 남아 즐고 있다

침실 불이 꺼지면
나마저 그 암막에 덮여
침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공항이 되었다

침대에서 잠이 들어야
육신은 나락처럼 깔리고
기록이 없는 시간으로 쌓일 뿐
영혼은 다른 세상을 향해 이륙한다

침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쉬는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침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살고 있는 곳에서 꿈나라로 떠나기를 기다리는 공항이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비행기처럼 느껴지는 공간에서 이륙한다. 그리고 꿈나라에서 현실과 다른 꿈을 꾸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생각나지는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돌아오는 패키지여행을 즐기고 있다.

신축년 우리 소

오 대 환(수필가)

돌이켜보면 6,70년대 대부분 농가에서 전답 말고는 소가 재산 목록 1호였다. 사료를 자급해야 하는 만큼 동네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집도 손꼽을 정도였다. 돼지는 고깃감으로 키웠지만 소는 귀중한 재산인 동시에 논밭 일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요즘엔 소도 팔자가 바뀌어 힘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지만 그때는 쟁기질 씨레질로 논밭 일 다 하고 가을건이한 곡식을 실어 나르고, 장날이면 사고 팔 물건을 달구지에 싣고 나들이까지 했으니 일꾼 중에도 제일 일꾼이었다.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삼동 아침저녁 끼니때면 사랑방 가마솥에 쇠죽부터 먼저 쭈어 먹고 나서 식구들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다. 작두로 벧짚을 썰어 여물광에 가득 채워 넣고, 벧짚 여물에 콩각지와 쌀겨를 섞어 가마솥에 쇠죽을 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쇠죽을 양동이(바께쓰)에 담아 들고 외양간으로 달려가면 구유 앞에서 침 흘리고 있던 소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초가지붕에 고드름이 달릴 때면 소등에 턱석을 해 입히고 외양간에 멍석을 둘러쳐 찬바람을 막아주기도 했다.

돼지 새끼를 낳아도 서로 축하해주던 시절이었으니 옆집에서 송아지라도 낳으면 동네 경사였다.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코뚜레에 코가 꺾여 어미 소와 헤질 때면 주인 아낙과 어미 소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소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해 소장수에 팔려갈 때도 목돈을 거머쥔 기쁨보다 결별의 아픔을 곱씹었던 그 시절이 아련하다.

농촌에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먹이던 소는 점차 사라지고 대규모 기업 축산이 생겨났다. 외양간은 수십수백 마리의 고깃소와 우유소를 기르는 축사로 개명을 했고, 소의 팔자도 180도 바뀌어 멍에와 코뚜레를 벗고 편하게 사는 대신 고깃소는 제 명의 10분의 1도 못 살고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됐다. 한때 토종 누렁이 한우는 입지조차 위태롭기도 했다.

비록 소를 평생 부려먹고 생명을 앗아 고기까지 얻어왔지만 서양과는 달리 소로부터 인내와 성실, 근면과 헌신을 배우고, 소와 함께 농경문화를 일구어 온 우리 민족이다. 서양에서 소를 고깃감으로 여겨왔다면 우리는 생활의 동반자로 수천 년을 함께 해왔다. 요즘 신중년이라며 가는 세월 아쉬워하는 세대 중 젊었을 때 한자리 하신 분들은 아마도 우골탑 턱을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니 살아생전 소에게 진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이리라. 그러기에 한우는 우리 경제를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끌어올린 숨은 공로자가 아닐 수 없다. 농촌에 경운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소가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해 온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거쳐 AI시대의 선두를 다투고 있는 밀바탕에도 우공들의 숨은 공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실제로 입버릇처럼 쓰고 있는 우리 속담을 살펴보면 소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우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살펴보자. 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었으니 농가에서 외양간은 금고나 마찬가지로였다. 기업 축산이 생기고 나서 외양간 대신 축사라는 말이 자리 잡았지만 우리 소의 원적은 변함없이 외양간이다. 그렇게 보면 요즘 흔하게 쓰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이나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다.”는 말도 그 유래를 따지고 보면 이 속담에서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다.

“비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외상이라든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보자. 금배지를 달면 그럴듯한 거짓말 웬만큼 해도 면책이 되다 보니 점점 배짱이 커져서 나라 살림 예산을 물 쓰듯 해가며 새빨간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대는 꼴불견이 하나 둘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말의 오염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속담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치 계단에서 소가 차지해왔던 위치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에게 한 말은 안 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는 말도 있다. 소와 사람의 관계는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빌딩을 올리든 벼슬자리에 오르든 간에 관계의 바닥이 튼튼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높은 자리는 손발은 물론 헛바닥까지 남의 것을 빌려 쌓아 올린 활성화층 꼭대기다. 바닥 중에 제일 뒤집히기 쉬운 게 헛바닥이다. 층층이 놓인 헛바닥이 뒤집혀 권력이 무너지고 감옥 가는 비극이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늘도 뒤집히는 헛바닥은 생중계가 되고 있다.

반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약이 됐든 권력이 됐든 중독이 되고 나면 그것밖엔 모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다. 권력에 중독되면 “황소고집”은 특권이 되고 만다. 소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중성도 지니고 있다.

소는 전통적으로 성실, 근면, 인내, 희생, 헌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지난 1년 반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곳곳에 어려움이 산적한 요즘, 소가 지니고 있는 품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올해 신축년은 신성한 하얀 소의 해란다. “우보천리”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처럼 담담하게 마음먹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